

전주매일

금연상담전화 | 1833-9030

전라북도 익산시 무왕로 895신동 344-22 한광대학교병원 5층 1호
TEL: (063) 859-2400 ~ 2410 FAX: (063) 859-2414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2017년 6월 19일 월요일 (음 5월 25일) 제1829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송 지사 “귀농귀촌 최적지는 전북”

▶ 도, 귀농귀촌 박람회 개최

“농업, 첫번째 도정 시책” 강조
로컬푸드관 운영 통해
도내 신선한 농산물 소개
관람객들에 알찬 정보 제공

전북도가 주최하고 전북도귀농귀촌 지원센터가 주관하는 '제3회 전북 귀농귀촌 박람회'가 지난 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 aT센터(농수산물유통공사 종합전시센터)에서 개최됐다.

개막식에 농림축산식품부 이재욱 농촌정책국장, 황원 전북도의회 의장, 김석준 삼락농정위원장, 강태호 전북농협지역본부장, 정규순 산림조합전북본부장 등 200여명이 참석하는 등 많은 인파속에 성황리에 진행됐다.

송하진 도지사는 개막식에서 “전북은 농업을 도정의 제1 핵심시책으로 정하고 ‘보람 찾는 농민’, ‘재값 받는 농업’, ‘사람 찾는 농촌’이라는 삼락농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전국 최초로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를 도입하는 등 전북이 농업의 최적지”라고 강조했다.

또, “역사와 정음이 살아 있고 생태 환경이 아름다운 청정 전북으로 많은 분들이 귀농귀촌할 것”을 당부하며 “전북도가 귀농귀촌인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다”고 약속했다.

전북도는 2015년부터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귀농귀촌 박람회를 개최, 귀농귀촌에 관심이 있는 많은 수도권 도시민들에게 전북도 13개 시군의 다양한 정채를 제공하고 있으며, 상담 및 교육을 통해 귀농귀촌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지난 16일 서울 양재동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aT센터에서 '전북도와 만나는 101가지 이야기'라는 슬로건으로 열린 제3회 전북 귀농귀촌박람회에 송하진 도지사를 비롯한 시장군수들이 농촌체험마을관등 홍보 부스를 돌아보고 있다.

전북의 귀농귀촌 박람회 주요성과를 보면 2015년도 방문객 수가 1만4,750명, 상담자 2,547명, 체험자 1,960명, 체험 및 농산물 판매는 1,909만원이었으며 2016년에는 방문객 수가 1만7,010명, 상담자 3,359명, 체험자 7,565명, 체험 및 농산물 판매는 3,144만5,000원이었다.

올 해는 방문객 수 2만명을 목표로 홍보를 강화, 상담 및 체험을 통해 전북도민의 특별한 귀농귀촌 정책 및 교

육을 실시, 로컬푸드관 운영을 통해 전라북도의 신선한 농산물을 소개하고 판매했다.

박람회 참관을 희망하는 사전접수자 약 4,000명에게는 전북 귀농귀촌 가이드북과 소정의 농산물을 제공하기도 했다.

이번 박람회는 전북도관, 유관기관관, 시군 홍보관, 교육기관, 체험관, 농특산물 판매, 청년농업, 첨단농기계관 등 총 8개 유형으로 구분하여 전시관

을 운영, 90여개 기관이 참여해 다양하고 알찬 정보제공과 체험을 진행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도시민들의 전북 지역 귀농귀촌을 위해 박람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귀농귀촌 5개년 계획을 바탕으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추진할 30개 세부사업에 3,102억원을 투자, 5년간 매년 도시민 2만명을 유치하고, 청년층(39세이하) 1,000가구를 육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진성 기자

전북경찰청 총경 15명 인사이동 예고

박성구 덕진서장 등 5명 올 연말 퇴직에 이어 10명 타지로 이동

전북지방경찰청 소속 총경들의 대대적 인사이동이 예상된다. 총경은 경찰서장과 지방경찰청 과장으로 실무를 총괄 책임지는 자리에 전북경찰청 소속 총경들의 이동이 관심을 끌고 있다.

지난 16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도내 총경은 모두 30명이다. 서장과 과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이들은 26명이다. 이중 5명이 이달 말 대기발령에 들어간 뒤 올해 말 퇴직한다. 박성구 전주덕진경찰서장, 김동봉 군산경찰서장, 황대규 김제경찰서

장, 황종택 남원경찰서장, 강현신 부안경찰서장이 해당한다. 전북에서는 총경 5명이 퇴직하고, 반대급부로 5명이 타 지역에서 들어온다. 또 10명이 이동을 할 것으로 보여 모두 15명이 자리를 이동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총경 인사는 본청(경찰청)에서 담당하기 때문에 아직 구체적인 윤곽은 모르고 있다. 통상 6월 말이나 7월 초 이동을 하는데 올해는 좀 빨라질 수 있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김민근 기자

전주 인권전담 센터 설치 보호제도 보완 등

인권도시 실현 청사진 마련

전주시, 인권보장 기본계획 수립 연구 최종보고회 개최

인권증진 기반 구축 등 4개 목표 실현 위한 24개 전략 제시

전주시가 인권전담 기구센터를 설치하고, 인권보호 제도를 보완하는 등 가장 인권이 존중되는 도시를 실현시키기 위한 청사진이 마련됐다. 시는 지난 16일 시청 회의실에서 전주시 인권위원회 위원과 인권관련 단체 및 복지시설 봉사자, 공무원 등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주시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및 공청회를 가졌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시와 전북대 사회학협력단(책임연구원 김미옥 교수)이 지난 6개월 동안 수립해온 전주시 인권기본계획안이 발표됐다. 인권기본계획은 전주시민의 권리가 보장되는 인권친화형 전주를 만들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로드맵을 제시하기 위한 것으로, 전주시 인권현황 조사를 바탕으로 오는 2021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수립됐다.

시는 ‘가장 인간적인 인권도시 전주’를 비전으로 한 인권기본계획에 △인권증진 기반구축 △인권친화적 도시환경 조성 △사회적 약자 및 시민 인권 증진 △‘인권보편화’를 위한 인권가치실현 등 4개 목표를 담았다. 또, 이를 실현하기 위한 24개 추진전략과 60세 세부과제를 제시했다.

대표적으로, 인권증진 기반구축의 경우, 시는 전주시 인권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인권음부조맹 도입과 장애인 전문 상담원 설치 등 인권친화적인 행정 추진체계를 구축하

고, 인권영양 평가제도 도입과 인권위원회 활동 강화 등을 통해 인권행정을 제도화할 계획이다.

인권친화적 도시환경조성의 경우, 시는 교통약자의 접근성 확보 및 장애인 보행환경 개선 등을 통해 교통약자 지원을 확대키로 했다.

시는 사회적약자의 인권 증진을 위해서는 아동·청소년과 여성, 노인, 장애인·이주민 등의 인권 보호를 위한 맞춤형 사업을 전개할 계획이다.

이에, 시는 인권가치 실현을 위해 인권교육도 강화키로 했다.

시는 이날 최종보고회 및 공청회에서 제시된 분야별 전문가들의 의견을 토대로 인권기본계획을 수정·보완한 후 이를 순차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김미옥 책임연구원은 이날 “동화정신과 혼불의 꽃의 힘을 인권에 반영함으로써 전주시의 정신이 갖는 인권도시 실현이 이뤄질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구체적인 추진전략과 전주시의 인권 실현 의지가 선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주시 기초조정국 관계자는 “이번 용역을 통해 인권이 추상적 담론에 그치지 않고, 현실성을 가지고 실행될 수 있도록 전수형 인권행정의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고, 취약계층 등 시민들의 인권보장이 강화된 인권행정을 추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인재용 기자

“군산 바이오발전소 건립 반대”

“시민 건강에 악영향” 군산발전포럼, 저지 선언

밝히고 있는 군산 바이오-SRF발전소에 대한 안정성 우려를 나타내며 지속 관심으로 저지운동 할 것을 선언했다.

이준희 위원장은 발제를 통해 “바이오-SRF발전소는 단적으로 페타이어 페플라스틱등 쓰레기를 태우는 발전소로 환경안정성이 전혀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시민 건강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단언했다. 이어 “SRF발전소는 우리나라에서 건설된지 10여년 밖에 되지 않아 박사연구논문조차 전문한 분야로 정부가 더이상 묻거나 쌓아놓

을 수 없어 태워야 하는 폐기를 처리 불가피성 때문에 환경과 기술수준을 정해 민간사업자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지 이는 안전하다는 것과는 전혀 다른 문제”라며 “더욱이 군산 비응향에 발전소를 건설하려는 중부발전소는 환경영향평가서를 통해 정부에서 할당된 재생에너지 양을 맞추기 위해 비응향에 발전소를 건립한다는 목적을 사실대로 정확히 기재하고 있어 시민의 자존심을 짓밟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열린 토론회에서는 최연성

포럼의장은 “최근 미세먼지등의 환경 문제로 화력발전소를 많이 보유한 당진이나 보령의 지역의 주민들이 깜짝 놀랐을 테지만 군산 새만금은 8월에 착공되는 군산바이오발전소가 200메가와트 전기를 생산하기 위해 1년에 목재 80만톤, 10톤트럭의 8만대 하루 200대 정도의 양을 태울 것을 비롯 향후 계획중이 발전소가 다 발전 할 경우, 당진 보령을 제치고 전국최대의 바이오발전소의 메카지역이 될 것이다”며 자조섞인 전망을 했다.

한편, 8월 군산바이오발전소 착공을 선두로 쓰레기 발전소가 줄줄이 건설 계획을 앞두고 있어 군산시민사회의 강력 반대 및 저지 운동이 본격화 될 전망이다. /군산=장 현 기자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Press Foundation

지역신문발전위원회
Local Press Commission

지역신문을 보면 지역이 제대로 보입니다!

우리 지역을 제일 잘 아는건 '지역신문'입니다.
지역신문을 읽는 당신,
내 고향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신문구독, 아는만큼 '힘'이 됩니다.